

제 2편

대구중앙교회사

제 3장 광복 후 교회의 재건 (1946~1949)

제 1절 해방과 북한 교회의 재건

제 2절 해방 후 남한 교회의 재건

제 3절 박병훈 목사의 부임과 목회

1. 박병훈 목사 부임

2. 박병훈 목사의 목회

3. 장로 및 집사 장립

제 4절 불굴의 출옥성자 서정환 목사

1. 신사참배와 서정환 전도사

2. 감부열 선교사가 본 서정환 목사

3. 서정환 목사의 부임과 목회

제3장

광복 후 교회의 재건(1946~1949)

제1절 해방과 북한 교회의 재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토록 잔인하고 악랄했던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게 된 날이며 삼천만 온 겨레가 감격에 벅찬 가슴으로 마음껏 애국가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날이었다. 마침내 일본 군국주의는 하나님의 철퇴를 맞아 굴복하고 우리 민족은 이제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일제에 강제 통합되어 일본 교단에 예속되는 등 갖가지 탄압과 수난을 당해 왔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해방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투옥된 옥중 성도와 한국의 목사, 장로 등 기독교 지도자들을 몰살하려던 소위 8.18대학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이 8월 15일에 밝혀졌을 때, 한국 민족의 해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기독 신자들의 감격은 더 없이 큰 것이었다. 하나님은 일제의 잔인무도한 대학살 계획이 실행되기 3일 전에 이 땅에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다. 8.15 해방을 삼천만 겨레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으리오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민족의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얻는 날이었으므로 그 기쁨은 한층 더 컸던 것이다.

8월 17일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5년 혹은 6년간 투옥되었던 주의 신실한 종들이 평양, 대구, 광주, 부산 등 형무소에서 출옥하였는데, 조선 총독 아베(阿部)의 계획에 따르면 소위 조선총독부 보호 관찰령 제3호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기 꼭 하루 전이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다. 이때 출옥한 성도는 차기에 우리 교회에 부임할 서정환(徐廷煥) 전도사(당시 40세, 평북 강계 출신)를 비롯한 30여 명이 있으며 평양 형무소가 가장 많았다. 이렇게 광복을 맞아 평양형무소를 출옥한 한상동, 서정환, 오윤선, 송영복, 이기선, 최덕기, 주남선, 고흥봉, 김화준, 조수옥 등은 그 날로 평양 산정현교회로 모여 다음날 교회 재건 문제를 토의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재건을 위한 토의와 난항 끝에 해방된 지 약 2개월 만에 출옥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재건운동자들은 다음 5개 사항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첫째, 신사에 참배한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은 통회 회개한 후 교역자로 재출발할 것.

둘째, 통회 자복 기간은 2개월로 할 것.

셋째, 목사 및 장로가 통회 기간 중인 교회는 집사 혹은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할 것.

넷째,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을 전국 노회 및 지교회(支教會)에 전달, 일제히 실행케 할 것.

다섯째,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복구 재건할 것.¹⁾

이에 호응한 북한 교회는 평북노회 주최로 평북 6노회 교역자 퇴수회(敎役者 褪修會)를 1945년 11월 14일부터 한 주간 선천 월곡동교회에서 열었다. 약 200명의 교역자가 모인 가운데 강사로 나선 출옥성도 이기선(李基宣) 목사의 신앙 간증 뒤에, 신사참배를 회피하여 일본으로 갔다가 그 후 만주로 가서 봉천신학원장으로 있던 박형룡 박사의 한국 교회 재건 기본 원칙이 발표되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장본인인 전 총장 홍택기 목사는 맹렬히 반발했다.²⁾ 그는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나섰던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고 언명하고, 신사참배 회개의 문제는 각인이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³⁾라고 선언하였다.

이렇듯 평북 6노회 수련회는 출옥성도들과 친일파 목사들 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갔지만, 교회의 재건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 일을 위해 협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평양노회와 연락을 취하여 이북의 5도 16노회가 연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그 해 12월 초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이북 5도 연합회가 소집되었다. 북한에 진주해 온 소련의 태도가 점점 교회에 대해 강경해지고, 38선의 경계를 강화하여 남북의 왕래를 금지하고 교회 지도자에 대한 감시와 사찰의 강도가 심해짐으로써 교회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시급한 실정이 되었다.⁴⁾ 이북 5도 연합노회(以北五道聯合老會)는 우선 김진수(金珍洙) 목사를 회장으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1. 북한 5도 연합노회는 남북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총회를 대행할 수 있는 잠정적 협의 기관으로 한다.
2. 총회 헌법은 개정 이전의 헌법을 사용하되 남북 통일 총회가 열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3. 전 교회는 신사참배의 죄과를 통회하고 교직자는 2개월간 근신할 것
4. 신학교는 연합노회 직영으로 한다.
5. 조국의 기독교 문화를 목표로 독립 기념 전도회를 조직하여 전도, 교화운동을 대대적

으로 전개한다.

6. 북한 교회를 대표할 사절단을 파송하여 연합국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한다.⁵⁾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림으로써 그렇게 용이하게 진행되지는 못 했다. 소련군 진주에 뒤이은 김일성 정권의 수립은 북한 교회로 하여금 중대한 시련을 겪도록 했다. 김일성 정권은 5도 연합노회의 구체적 행동에 경계를 하고 있었다. 더구나 기독교사회민주당과 같은 정당이 출현하고, 신의주 학생 봉기가 있자, 교회의 세력을 부르조와의 잔재 요소로 간주하고 그 근절을 계획하게 되었다.⁶⁾

그런데 박해의 좋은 구실이 생기게 되었다. 그들은 공산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1946년 11월 3일 주일(主日)에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선전 포고였다. 교회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시간에 투표하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시대의 신사참배 강요와 같이 교회를 또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었다.⁷⁾ 그러나 연합노회의 태도는 확고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당국에 통고했다. "북한의 2천 교회와 3십만 기독교 신도들은 신앙의 수호와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5개조 교회 행정의 원칙과 신앙 생활의 규범을 택정, 실시 중에 있어온 바, 현대 귀(人民) 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⁸⁾

그 5개 조란 다음과 같다.

1. 성수주일을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예배 이외의 여하한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2. 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구별한다.
3.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다. 교회당은 예배 이외에는 여하한 경우도 이를 사용함을 금지한다.
4. 현직 교역자로서 정계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사면해야 한다.
5.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⁹⁾

공산당의 술책은 적중한 셈이었다. 이들은 투옥과 강제 노동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한편, 1946년 11월 28일에는 기독교도연맹(基督教徒聯盟)을 조직하여, 왕년의 부흥사 김익두(金益斗) 목사와 산동성 선교사였던 박상순(朴商純) 목사를 감언, 공갈로 가맹시킨 다음, 교회를 공산주의 선전에 악이용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남한을 공격하고, 김일성을 절대 지지하며, 선거에 출선수범 한다는 해괴한 결의문까지 발표하게 했다. 이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목사들은 투옥과 추방으로 위협하였다.¹⁰⁾

결국 1949년에 5도의 교회 대표자들을 평양 서문밖교회에 모아 놓고 기독교도연맹 총회

를 구성하여 총회장에 김익두, 부총회장에 김응순, 서기에 조택수 목사 등을 각각 선출하여 조직을 완료함으로써 그야말로 공산당의 어용 기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¹¹⁾ 신학교도 공산당의 손에 강제 통합되었다. 1946년 9월 창립된 감리교의 성화신학교와 장로교의 평양신학교에는 각각 6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이들 신학교의 학생을 각각 60명으로 줄이고 1950년 3월, 둘을 통합해서 정원 120명의 '기독교 신학교'로 축소시켜 그 위세를 꺾으려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는 재건파도, 5도 연합회도, 기독교도연맹도 다 저들의 기독교 박멸 정책에 모두 희생되고 말았다. 지난날 그 찬연하던 이름마저 훼손 당하고 저들의 술책에 희생 당한 많은 지도자들을 못내 아쉬워 할 뿐 이제 북한 땅 어디에도 교회당은 없으며 교인 또한 공식적으로는 없어졌다.¹²⁾

제2절 해방 후 남한 교회의 재건

해방이 된 후 남한 교회는 북한과는 사정이 달랐다. 우선 남한에서는 북한과는 달리 손양원(孫良源) 목사 외에는 이렇다 할 출옥 성도가 없었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출옥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한 교회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별로 없었다. 그러므로 해방 직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였던 김관식 목사를 비롯하여 송창근, 김영주 목사 등의 장로교 계통의 인사들과 김인영, 박연서, 심명섭 등 감리교 계통 교단 지도자들은 당연히 모든 교직에서 물러나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또 그들의 자리를 메울 만한 인사들도 마땅치 않아, 자연히 그들이 교권을 그대로 쥐고 남한 교회의 재건에 나서게 되었다.¹³⁾

일제 말엽 강압에 의해 국내의 여러 교파들이 하나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왕에 하나가 된 교단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운동이 있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한 것은 교회의 일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있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독교적 건국 이념을 제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음이 분명하였다.

1945년 9월 8일 새문안교회에서는 감리교의 변홍규(卞瀉圭), 이규갑(李奎甲)을 비롯하여 박연서(朴刻瑞) 목사 등이 장로교의 김관식, 송창근, 김영주 등 여러 목사와 통합해서 그 존속을 의논했다.¹⁴⁾ 이 모임이 소위 남부대회였다. 그러나 그 성질과 의도에 있어서 북한 지역의 교회 재건 운동과는 판이한 조류의 것이었다. 교권과 정치적 야욕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오래 전부터 온 교회가 염원해 오던 단일 한국 교회의 원대한 희망이 이러한 형식으로나마 계승, 확립할 가능성을 주창한 것은 가찬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이들이 기도한 대로 교단 유지를 원하지 않았다. 원래 교단은 장로교보

다 시국을 잘 타던 감리교 중심이었고 그들의 횡포에 밀려 났던 감리교 인물들, 이규갑, 변홍규 같은 이들이 여기에 호응할 리 없었다. 그들은 대회 석상에서 감리교회의 재건을 부르짖고 퇴장하여 동대문감리교회에 모여 재건중앙위원회를 결성하고 동부, 서부, 중부의 세 연회를 조직, 1946년 1월 14일 동대문교회에서 연합연회(General Conference)를 모아 감리교회의 재건을 결의했다.¹⁵⁾ 이렇게 해서 교단 계승을 전후까지 유지한 일본과는 달리, 교파의 난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더욱이 남한에서는 구미 여러 교회에서 밀어 닦치는 군소 교단의 도입 때문에 전혀 신학적인 필연성이 다른 이국(異國) 교파의 난립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이런 교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의심할 바는 없겠지만, 교파의 지나친 다양성이 가져온 남한 기독교의 혼란을 장차 겪을 분열의 비극을 당연히 하는 가장 비복음적인 입장도 가져오게 하였다.¹⁶⁾

장로교측도 복귀를 찬성하여 경남노회를 필두로 1946년 초까지 남한 전역의 모든 노회들의 재건을 완료하였다. 전국의 노회 재건이 완료됨에 따라, 1946년 6월 12일부터 서울 승동 교회에서 남부대회가 소집되었다. 남한교회들만의 모임이었기에 총회라 이름 붙이지 않고 대회라 칭하였다. 이 대회는 재야 목사였던 배은희(裴恩希)를 대회장에, 함태영 목사를 부대회장에 추대하였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나, 진실된 참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1947년 4월, 대구제일교회에서 제2회 남부대회가 열렸는데, 이 때 1942년 일제의 강압으로 해산되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1회 총회를 계승하여 제33회 총회로 개회할 것을 결의하였다.¹⁷⁾ 이렇게 결정한 것은 세월이 갈수록 38선은 더욱 굳게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막연히 공산당 정권이 독립 국가로서 처세를 갖추어 가고 있었으므로 남한 교회에서는 막연히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총회의 결성을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¹⁸⁾

제3절 박병훈 목사의 부임과 목회

1. 박병훈 목사 부임

박병훈(朴炳勳) 목사는 본래 이름이 개명(開明)으로 경산군 하양면 양지동에서 성장하여 17세 때 주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신앙을 가진 예수교인이 된다는 것은 미신적인 분위기에 있었던 가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박 목사는 어릴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매를 피해 집에서 봉창 구멍으로 탈출하기가 빈번했으며, 때로는 그의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예배당 주위를 돌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때로 집에 들어가지 못해 교회 직분자들의 가정을 맴돌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에 끝내 인내를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오

다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결단하고 1934년 1월의 제23회 경북노회에서 전도사 시취에 합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양신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목사 후보생 시취에도 합격하여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¹⁹⁾

해방이 되자 박 목사는 경북 의성군 의성읍교회에 위임목사로 부임하여 봉사하였다. 의성읍교회는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박병훈 목사의 설교 말씀은 음성이 명랑하고 조리가 있어 일반 교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박 목사는 부임 이후 의성 지방 기독교 신도 대회를 개최하여 교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지역 사회에 난무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투쟁하여 그 세력을 막는 데도 공이 컸다."²⁰⁾

1947년도 총회와 경북노회에서는 목사 겸직 불가론이 대두되어, 당시 우리 교회를 담임하던 최경학 목사는 1947년 7월 당회에 구두로 사의를 표하였고 당회원들은 극구 만류하였다. 그러나 최 목사는 겸직으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 목사의 사임이 노회에서 결정되었고 노회와 시찰회는 7월 23일 임시당회장 정재순 목사를 파송함으로 최경학 목사는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러할 의성읍교회에서 봉사하던 박 목사가 1948년 1월에 우리 교회의 임시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2. 박병훈 목사의 목회

최경학 목사와 서정환 목사의 중간 시기인 박병훈 목사의 부임 기간 1년은 교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비록 임시당회장의 자격으로 목회를 했지만 순조롭게 교회를 이끌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박 목사에 대한 인상도 모두 긍정적이다. 박 목사는 부임하자 그 해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니 남장년부는 우달현, 이평근, 여장년부는 최종수, 한귀순, 학생부는 이명두, 송정현, 유년부는 도진택, 이문두, 음악부는 조병택, 송정현씨가 임명되었다.

1948년 1월 30일 박병훈 목사는 송종화, 이평근, 이달범씨 등의 당회원들과 당회를 소집하여 명예권사를 추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날 추대하기로 한 명예권사는 김숙빈, 서일술, 이우이, 차경선씨이다. 그리고 장립집사 및 서리집사(남 5인, 여 7인)를 두기로 결의하고 2월 1일에 남자 서리집사에 우성기, 빈성관, 신복열, 이재학, 남응락씨를 선출하고 여자 서리집사에 최종수, 김양순, 김은선, 방성순, 조말수, 장계수, 김춘기씨를 선출하였다. 2월 12일 오후 2시 당회에서 송종화 장로 10주년 기념 행사와 최경학 목사 송별식 및 박병훈 목사 환영식을 2월 22일에 거행기로 가결하고 손양원 목사를 강사로 하여 2월 28일부터 부흥 사경회를 하기로 하되 사경회 전 3일 간 준비 기도회를 하기로 하

였다. 3월 11일 당회에서는 3월 14일부터 봄 심방을 하기로 하고 성찬예식도 거행키로 결의하여 실행하였다.

박병훈 목사는 우리 교회를 떠난 뒤에는 한국 교계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었다.

3. 장로 및 집사 장립

해방을 맞이한 다음해인 1946년에 우리 교회는 장로 한 사람을 증원하기로 하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투표하니 이달범 집사가 피택되었다. 피택된 이달범 집사는 1947년 2월 9일 장로로 장립하였다. 1947년 3월 11일 공동의회를 열어 다시 장로 두 사람을 선거하니 조병택, 도진택씨가 피택되어 그 해 가을 노회에 시취를 거쳐 허락을 받아 두 사람은 1949년 1월 9일 장립식을 거행함으로 장로로서 봉사하게 되었다. 1948년 1월 30일 당회에서 장립집사를 두기로 결의하여 1948년 2월 1일 공동의회에서 안경수, 김재교씨가 피택되었다. 그 해 2월 22일 장립하였다.

제4절 불굴의 출옥성자 서정환 목사

1. 신사참배와 서정환 전도사

잔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다 옥중에서 고생한, 소위 옥중성도들의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서정환(徐廷煥) 목사 때문이다.

서정환은 평안북도(平安北道) 강계군(江界郡) 고산면(高山面) 보상동(補上洞)에서 태어났다. 그의 나이 15세까지는 서당(書堂)에서 한문을 배우고, 16세에 공립보통학교(公立普通學敎)에 입학하여 19세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27세까지는 고향에서 대서업자(代書業者)로 일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직업이 전환된 것은 선교사 감부열(A. Campbell-甘富悅)을 만남으로 인해서였다.²¹⁾

청년 서정환은 감부열 선교사를 만남으로 장로교 신자가 되었고 그 후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 고향땅 고산진교회(高山鎭敎會)의 집사와 영수(領械)로 약 3년간 봉사를 하였다. 1932년부터 강계읍에 이거(移居)하여 읍내의 남교회(南敎會)의 집사로 봉사하는 한편 선교사 감부열의 서기(書記)로 봉사하였다. 얼마 후 남교회의 장로가 되었는데 이 때는 바야흐로 한국의 교회가 신사참배의 열풍에 휘말리고 있던 때였다. 장로 서정환은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을 수 없어서 1938년 9월부터 강계군 전천면(前川函) 전천교회(前川敎書)로 옮겨서 전도사로 봉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교회를 옮긴 것은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도전하며 그 거센 테풍을 막아 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전도사 서정환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매우 단호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며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여호와에 대한 영적 간음이라고 가르쳐 오면서 동시에 감부열 선교사의 집에서 11명의 신앙 동지들과 함께 성경 연구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참 뜻을 찾아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무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그 시절에 일본 순사들이 이를 모를 리 없었고 1939년에 성경 연구 모임 중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서정환 전도사는 간악한 일제 형사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 받으면서 온갖 회유와 능욕을 감당해야만 하였다. "신사참배를 하겠다"는 한 마디만 하면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정환 전도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결단하였다 거의 7년에 걸친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도 신앙의 절개를 곳곳하게 지켜오던 옥중성도들과 함께 1945년 5월 18일에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이란 곧 사형으로 이어지는 수순에 불과한 것으로써 당시의 용어로는 예심종결(豫審終結)이라 하였다. 예심종결이란 이제 더 이상 회유와 협박을 할 가치가 없어 죽여 버리겠다는 신호탄이었다. 서정환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21명의 동지들과 함께 예심종결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있었다. 당시의 예심종결서(豫審終結書)에 나타난 죄목은 다음과 같다.

- (가) 그리스도 再臨이 目睫에 臨迫한 今日 救援얻을 眞正한 敎徒를 多數 얻는 것은 忠信者의 義務이다. 따라서 이 때문에 家庭禮拜를 盛行시킬 것,
- (나) 現在는 이미 末世로 近近 地上千年王國이 建設될 것이 分明함으로써 우리들은 끝까지 眞正한 敎徒로서 同時에 多數 同志獲得에 努力해야 한다.
- (다) 偶像인 神社에 參拜하는 것 같은 反戒名 行爲는 絶對로 이를 排擊한다.
- (라) 神社參拜하는 敎會에는 出入하지 말고 捐補도 하지 말 것 등을 협의하고, 그 實行을 말하는 등 신사참배 반대를 적극 지원하였기 때문에 첫째, 치안 유지법위반 둘째, 불경 셋째, 보안법 위반 넷째, 육군 형법 위반

일제는 이와 같은 얼토당토한 죄목으로 7년 동안 감옥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오던 서정환 전도사를 학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8.15 해방이란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해방이 아니었다면 8월 18일에 있을 일제의 학살 음모에 의해 모든 옥중 성도들과 함께 서정환 전도사도 학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본래부터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던 그는 옥중에서 인생을 끝마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지

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해방을 보게 하였다.

2. 감부열 선교사가 본 서정환 목사

해방을 맞이하여 서정환 전도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토록 간구하고 기도하던 신앙의 자유를 얻어 지옥과도 같았던 옥고를 끝마치고 출옥하였다. 출옥 시의 그의 감격과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 감히 생각만 해 보아도 가슴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전도사의 신분으로서 7년간의 옥고는 그 어떤 신학수업보다도 소중한기에 서정환 전도사가 소속했던 노회에서 이 7년의 형기를 신학훈련으로 인정받아 출옥 후 곧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 목사가 된 서정환은 1947년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자신의 신앙의 조력자인 감부열 선교사를 만났다. 감부열 선교사는 옥중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정환 목사를 만나자 크게 기뻐하면서 서 목사에게 작은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었다. 이 교회는 청송 복동교회였다. 선교사 감부열은 서정환 목사와의 재회를 훗날 감격의 글로써 남겨 두었다. 감부열은 출옥 후 만났던 서 목사와의 만남을 대화체로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라는 책에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 내용들을 여기에 실고자 한다.

"한 십여 차례 양을 맞고 나면 아무런 감각(感覺)이 없어져서 아픈 줄을 모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여러 번 물을 먹였지요. 나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생을 생각하고 견디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물 먹이는 법은 거짓말하는 죄수를 참말하게 한다고 그러디다.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하는 줄은 당신들이 아는 것 아니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날더러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자 그들은 그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

"유월에는 저를 의주(義州)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사십일 동안 매를 맞았지요. 그럴 때 나는 주님의 사십일 금식한 일을 기억했습니다."

"저들은 많이 자란 내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고 나서 목이 아플 때 나는 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때에 나는 십자가 위에서 갈(渴)하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당하신 고갈(枯渴)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어 눈물이 흘러서 내 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후에 나는 곧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

그들은 매일 같이 내 문제의 해결은 신사(神社) 앞에 나가서 머리 한 번 숙이는데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너는 어리석느냐? 한 번 머리 숙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곧 내 머리 속에는 "만일 나에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하

는 마귀의 말이 생각나고, 뒤이어 주님의 대답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후부터 그들은 더 권유(勸誘)할 수 없었지요."

"얼음장 같이 얼어드는 시멘트 바닥에서 자는 일은 가장 참기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어 준 모포(毛布) 한 장에는 이 벼룩이 육살거렸지요. 빈대가 많아서 잘 수는 없고 죽이려니 어둔 밤에 보지는 않고…………"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줄을 지어 서서 그들이 강조(強調)하는 목욕 차례를 기다리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이른 아침 찬 바람이 불어오면 전신이 얼음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았지요. 나를 세상에 두셔서 쓰실 일이 계셨던 것 같았어요."

"이와 빈대에 물려서 내 몸은 '옴'이 걸렸던 악창(惡瘡)과 같이 거뭇거뭇 했습니다. 나는 '옴'과 같이 기와 조각으로 긁고 싶었던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보(進歩)가 되었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 번 심문을 받았는데, 그들은 일본말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偶像崇拜)를 금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힐문(詰問)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말에 이기지 못할 때마다 분을 내며 나를 때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다수는 내가 옳다고 알고 있었지요. 그래도 그걸 시인(是認)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일본 고간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이었지요. 일반 사회에서라면 도저히 그런 이들에게 증거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많이 들려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속에서 자라나도록 언제나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날 밤에 일본 순사 하나가 내 감방(監譯)으로 들어 왔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언제나 내가 끌려 나갔던 것이었지요. 나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고 수상해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늘 조심해 보아 왔소. 당신처럼 예수 믿는 신앙이 큰 것을 나도 처음 보았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소.'"

"잘 할 수도 없는 일본말로 그에게 증거할 수 있던 일은 참으로 영광스런 일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날부터 제가 받는 식사(食事)는 펍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화 불량증(消化不良症)이 있어서 그것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감방에 있는 동료(同僚)들과 나누어 먹었지요. 동료들이 석방(釋放)되어 나갈 때면 그들은 나의 손목을 잡고 눈물로 감사를 표하며, 나가면 자기들도 예수 교인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80명은 그런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나온 후로 그들

여럿을 만나서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는가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 ' 그들은 확언(確言)했습니다."

"나는 끌려 가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믿겠노라고 했지요. 내 생각에 한 200명은 틀림없이 믿게 된 줄로 압니다."

"감옥 안에는 다른 교인들도 나와 같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죽게 된 줄 알고 간수(看守)들은 그들을 놓아 주었는데, 후에 들으니 그들은 회복(回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해서 감옥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주(新義州)에 있던 사랑하는 교우들이 찾아 와서 어떤 집으로 옮겨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무한(無限)한 보양(保養)을 받으며 천국에 온 감을 느껴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었습니다. 강계(江界)로! 내가 체포되고 심문을 받고 일본말 성경을 읽으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던 강계로! 가기를 열망(熱望)했습니다. 나는 일본 경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고자 하였던 때문입니다."

"내가 강계로 갔을 때에 나는 일본 경관 200명이 아직 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찰서에 모여서 귀국(歸國) 수속(手續)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강계 사람들에게 당할 복수(復讐)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같이 체포되었던 고 목사님과 같이 경찰서로 찾아 갔습니다. 우리는 허락을 얻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를 때리고 심문하던 얼굴도 보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조대신(天照大神)이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늘 말했지요? 천조대신은 모든 신들보다 힘이 있어서 일본에게 늘 승리(勝利)를 가져다 준다고요? 이제 당신들은 그것이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때에 당신들의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들은 우리를 때렸지요?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을 저주(詛呪)하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또한 당신들이 참마음으로 돌이키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습니다. 당신들이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받고 믿으십시오."

"여러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서며 우리들의 손을 힘있게 붙잡았습니다."

"나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看守)를 대하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그래

서나는 그 보배로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마음이 강박하던 일본 경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고국에 돌아가면 꼭 예수 교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²²⁾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옥중 생활 7년이 말과 글로는 간단하지만 당시의 형무소의 상황을 생각하고, 당시의 일제 순사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생활이란 고난의 십자가였음이 분명하다. 당시에 이 민족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골고다 언덕의 주님과 빌립보 감옥의 바울을 친구 삼아 긴 형기를 살아왔던 것이다. 서정환 목사의 옥중 고백 앞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며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속적인 부귀 명예와 권세의 유혹에 빠져 방향을 잃어가는 오늘의 교회를 향한 서 목사의 외침을 우리는 겸허하게 들어야 할 것이다.

교권과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에 바빠서 참 신앙을 잃어버리며 시기와 반목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 도전하는 서 목사의 음성은 진정 20세기말의 예언자의 음성이 아닐까 !

3, 서정환 목사의 부임과 목회

1949년 7월 20일 서정환 목사는 청송 복동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부임해 왔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목회 인생을 맞이하게 된 서 목사는 열정적으로 목회를 위해 노력하였다. 서정환 목사는 부임하는 다음날인 1949년 7월 21일 오후 4시 40분에 교회 하층에서 모인 당회에서 시무 중인 다섯 분의 장로들의 시무투표를 하기로 가결하였다. 총회 헌법에 근거한 당회의 결의대로 7월 31일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하니 당시의 시무장로인 이평근, 송종화, 이달범, 도진택, 조병택 장로는 각각 시무 찬성표가 많아서 시무기로 결정되었다. 장로의 재신임에 대한 제도는 장로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일인데도 교인의 결속력을 다져 지도력 있는 당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작업을 감행했다.

1949년 10월 6일 당회에서 신학교 후원회를 조직기로 결의하고 임원 선출을 하니 회장은 이평근 장로가 서기는 도진택 장로가 각각 선임되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1월 14일 당회에서는 도진택 장로를 노회 총대로 파송하기로 하고 부흥 사경회 강사로 권세열 목사를 선정하고 이광우 전도사를 1950년 말까지 시무기로 시무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한 달 뒤인 12월 17일 당회에서는 1950년도에 수고할 직원을 임명하니 명예

권사에 이우이, 서일술, 안조곡, 차정선씨가 임명되고 장년부장에 이달범 장로, 여부장에 김양순, 중등부 지도에 이광우 전도사, 유년주일학교 부장에 도진택 장로, 부부장에 우성기 집사가 각각 피선되었다. 그 달 24일 당회에서는 성가 대원의 자격을 학습과 세례자로 하되 성가대 고문인 이달범 장로와 성가대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다.

1950년 벽두에 이덕조 전도사가 새로 부임을 하여 서정환 목사의 목회를 지원하게 되니 교회는 한결 섬김의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6.25동란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12월 1일에는 김은일 전도사가 새로 부임을 해 오기도 하였다. 전쟁 중에도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구원 사업을 늦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51년 3월 16일 당회는 3월 26일부터 봄 대심방을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당회 서기를 이달범 장로에서 조병택 장로로 새롭게 선출했다. 그리고 이 날 당회는 서울의 청량리중앙교회 당회장이 보낸 김영, 유산옥, 김미자씨의 이명(移名)과 고령교회 배소악, 조월화, 이정원, 이재환, 이끝조씨의 이명과 그리고 김천 황금동교회 최원택, 김기남, 최기유씨의 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들은 교회를 옮기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교역자와의 일말의 의논도 없이 옮길 교회를 자기가 선정해서 자기가 옮기는 일이 많은 것을 생각할 때 당시의 교회는 질서가 분명히 서 있고 교권이 인정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51년 6월 1일 열린 당회에서는 신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각종 문답을 한 결과, 학습문답에는 장성원, 유경호, 장복순, 박영자, 하순자, 김순자, 김소남, 최난희, 박수봉, 황복경, 박금조, 이현숙, 박정자씨 등이 문답에 합격하였고 세례문답에는 심원호, 김경호, 황갑중, 송인순, 장윤복, 이분안, 김복수씨 등이 문답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그 달 10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노회 총대로 이평근 장로를 파송하기로 하고 장로 2인 증선을 노회에 청원키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광우 전도사 후임으로 오병세 전도사를 청빙키로 하였다. 이 결의가 있고 난 뒤 7월 3일 오병세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다. 그 해 10월 7일 당회에서는 그 달 16일부터 가을 대심방을하기로 결의하고 대심방을 하였다.

참 고 문 헌

- 1) 朴淪, 韓國基督教百年, 第4卷, 서울 .聖書敎材刊行社, 1984, pp. 175~177.
- 2) 李永獻, 韓國基督教史, 서울 :컨콜디아사, 1992, pp. 228~229.
- 3)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 서울 :大韓敎會長老會總會 宗教敎育部, 1956, pp. 47~48.
- 4) 金仁洙, 韓國基督教史,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 306
- 5) 金良善, 위 의 책, pp. 47~48.
- 6) 閻庚培, 韓國基督教會史, 서울 '大韓基督教出版社, 1993, p. 455.
- 7) 金仁洙, 위 의 책, pp. 307~308.

- 8) 金良善, 위의책, p. 63.
- 9) 金良善, 위의책, p. 63.
- 10) 閔庚培, 위의책, p. 455.
- 11) 金仁洙, 위의책, p. 310.
- 12) 안병렬, 安康第一敎會八十年史, 대구 : 慶北印刷所, 1986, p. 125.
- 13) 金良善, 위의책, p. 50.
- 14) 閔庚培, 위의책, p. 456.
- 15) 李永默, 위의책, p. 230.
- 16) 閔庚培, 위의책, p. 457.
- 17) 1946년에 모였던 제1회 남부대회를 제32회 총회로 인정하였음
- 18) 金仁洙, 위의책, p. 317
- 19) 김형국, 河陽敎會八十年達, 대구 : 경북인쇄소, 1991, p. 222.
- 20) 김정엽, 신칠성, 義城邑敎會八十年史, 대구 : 한신준화인쇄사, 1988. p. 75.
- 21) 朴淸, 韓國基督教百年, 第11卷, 서울 : 聖書敎材刊行社, 1984, p. 412.
- 22) 감부열, 韓人心中의 그리스도(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서울 : 寡南社, pp. 122~12